

# 아버지의 묘는 어디에?



김원길 소장

전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

항공사령부 참모장, 소장.

## 약 력

- 1912 원동변강수청시(현재 빨찌산쓰크)에서 출생
- 1934 원동변강 우리지오보스도크시 고려사범대 입학
- 1937 ~~1941~~ 카자흐공화국 크슬오르다시 사범대학 역사학부 졸업
- 1938 김에까제레니나와 결혼
- 1944~1947.8 원동변강 태평양함대 우리지오보스도크시 해군부대 근무
- 1945 나진, 청진 원산등 상륙전 참가
- 1947.8 제대. 북조선 도착
- 1947.8~1958.12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부 부국장. 항공사령부 참모장, 독립어단 어단장(소장)
- 1959 1.16 출근 이후 행방 불명

나의 아버지 김원길은 1912년에 원동변강 연해주 수청시(현재 빨찌산쓰크)에서 탄생하였으며, 1934년 원동변강 우라지보스도크시 고려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1937년에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로 말미암아 그 대학과 같이 이주하여 1938년 카자흐공화국 크슬오르다시에서 사범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하였다.

그 후 따슈젠트주에 파견되어 따슈젠트주 인민위원회 교육부는 나의 아버지를 중칠치 구역 기로브 명칭 국영 경리내에 있는 고급중학교 역사교원으로 파견하였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 김에까제레리나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나는 1939년에 태어났으며, 나의 누이동생 밀라는 1942년에 출생하여 우리 오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아주 평화롭고 호화롭게 자랐다.

1944년 아직 소련인민들의 조국전쟁은 반타격전으로 전선에서는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시기에 나의 아버지는 군사동원부의 명령을 받고 우리 세 식구와 작별하고, 원동변강 태평양 함대 우라지보스도크시 해군기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일제의 침범을 경계하고 있던 전체 해병들과 함께 긴장한 군사적 태세로 군사 복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sup>전쟁은</sup> 계속되고 있는 조속히 끝낼 목적으로 소련군 수뇌부는 연합군의 선성함 의무로 1945 8월 9일 아침에 공적까지 평양 하갈라 함께 일본 정부에 전쟁 포건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원종 변강에 위치하고 있던 육군 제1, 제2 전선과 때를 같이 하여 소련 태평양 함대로 대일본 전후에 참가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에 나의 아버지는 태평양 함대 해군 육전대로서 4진 해방 전후에 참가하였다.

1947년 8월에 모스크바로  
부터 당중앙의 명령을 받고 소

련군에서 제대되어 집에 돌아  
와 가족들을 데리고 조선민주  
주의 인민 공화국에 파견되어  
가서 일하게 되었다. 조선에 도  
착한 이후 아버지는 조선인민  
군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 항  
공사령부 참모장, 직속 독립여  
단 여단장 등 직책에서 일하였  
으며, 군사 칭호는 소장이었  
다.

1958년 12월이 되자, 그 후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  
지는 아주 수심을 품으면서 고  
민하기 시작하였으며, 한숨도  
종종 쉬는 표정이 보였다. 한  
다. 그후 1959년 정월 16일, 바  
로 금요일이었는데, 아침에 아  
무런 말씀도 없이 일하러 나가  
셨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너무나 이상  
하여 여러곳에 전화하여도 알  
아볼 길이 전혀 없었다. 2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자 사무실에  
나가 물어본즉 - 아마 출장갔  
을것입니다. - 라고 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그래도  
한나라 정규군 소장인데, 아무  
런 소식도 없이 잃어지고 말았  
다.

문

나는 그 당시에 소련 유학중  
이어서, 어머니 혼자 애를 쓰면  
서 인민총참모부, 당중앙간부  
부, 소련 대사관 등에 다니면서  
아버지의 거처를 알려고 하였  
으나 전부다 헛된 일이었다. 나  
중에 알고보니, 김일성은 자  
기의 정치적 불신임자들을 직  
접 체포할 아무런 근거도 없을  
때에는 이렇게 슬그머니 납치  
하여다가 처단하여 버리는 것



아무리 잘 맞아 큰 오빠의 집이라 하여도 그 집에서

계속 밥 먹고 살 수는 없었다. 때문에 아직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딸라는 오빠네 집에다 딸려두고 오빠를 따라 우크라이나

- 백로시아, 캅카스 지방에 돌아다니며 협동조합들의 계절로

- 동자로 남자를 대신하여 해마다 - 해마다 갓인고생을

~ 다하면서 자나 깨나 나의 아버지께 불어 반갑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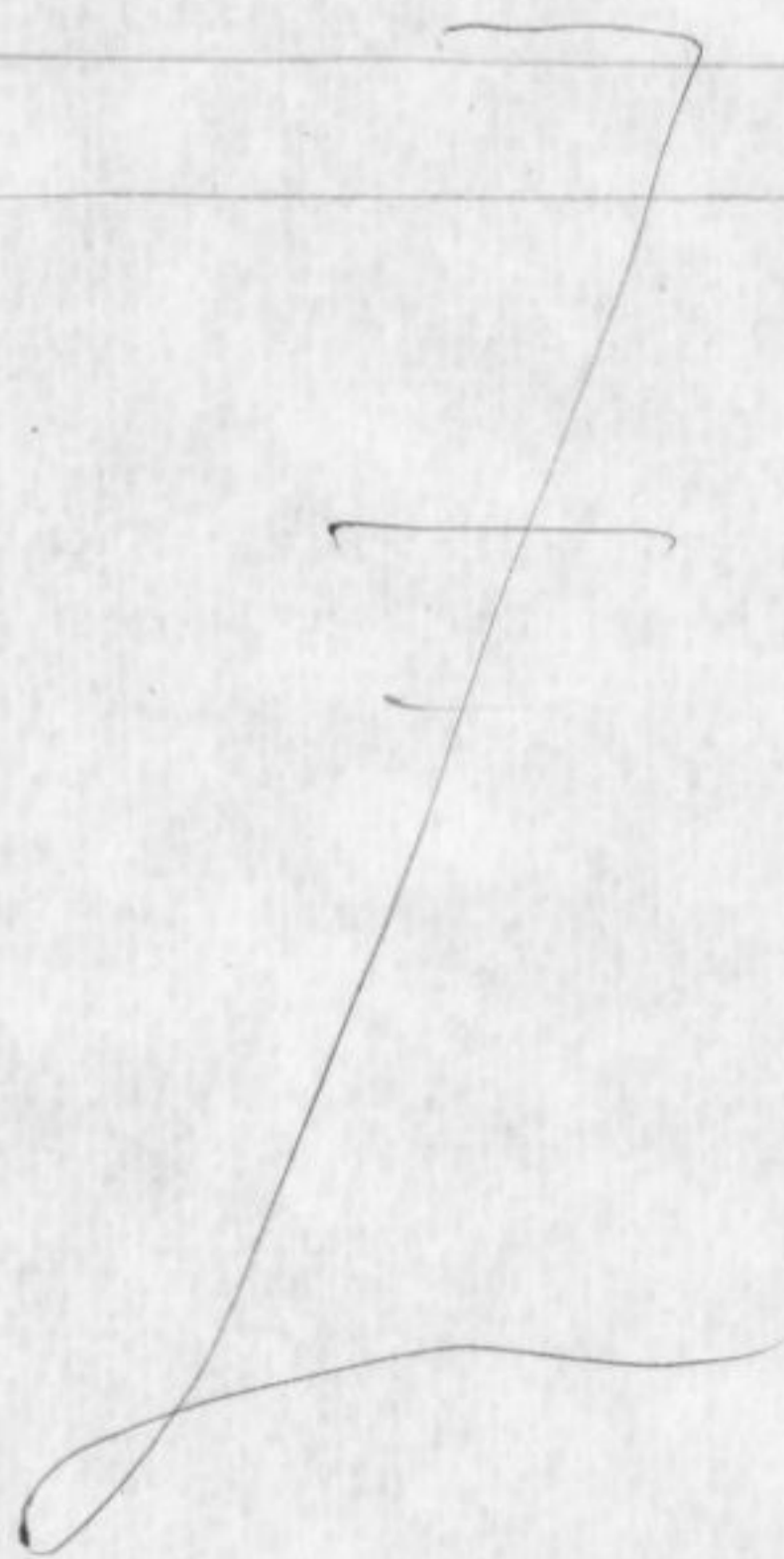
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울면서 살았다. 이렇게 20

여 년간 외지에 돌아다니며 힘에 넘치는 로동을

계속한 어머니는 내공에 모래-모래 증환에 걸려

말씀 하시다가 - 독에 가득찬 원한을 풀지 못하시고

1982 년에 세상을 떠나시었다.



나는 196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차르조우 선박수리 공장 동력 총기사로 1975년까지 일하다가 어머니가 계시는 따슈겐트에 이주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따슈겐트 전기시설품 공장 실험실 상급기사로 일하고 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아버지를 생이별하고 한숨과 눈물로 선조들의 고향땅을 하직하고 소련땅에 도착하여 매일 나의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울면서, 일하면서 살다가 1982년에 세상을 마감하였으나 가슴속에 원한은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시었다.

5

나에게는 현재 대학을 졸업한 큰아들과 중학을 졸업한 둘째 아들이 있다. 이들은 항상 벽에 걸려 있는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쳐다보면서 언제나 "제두스까에 대한 편지가 오겠는가?" 하고 묻는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들은 나의 아버지가 세상떠난 날을 모르며,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죄로 납치되어 목숨을 빼앗기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소련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해방된 후 일개월 이후에야 소련으로부터 평양에 들어와 조선인민의 해방자가 가장하고 소련군의 허수아비가 되어 독재정권을 세우고 죄 없는 무수한 인민을 학살하면서, 그것도 부족하여 돈만 알고 계집질만하는 자기 아들에게 그 정권을 세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들과 함께 어느 때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아버지의 묘를 찾고야 말것이다.

김원길 소장의  
아들 김로베르트

